

MMPI 무선반응 태도 탐지척도의 유용성

조 선 미 · 박 병 관 · 안 창 일

신 등 군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정신과

본 연구에서는 학생생활연구소에서 상담한 대학생 146명과 정신과환자 182명, 그리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만든 무선반응 자료 150개를 가지고 선행연구에서 제안된 무선반응 분류기준의 유용성을 검토해보았다. 분석결과 Greene(1978)의 분류기준인 TR 4이상, Ca 4이상, F 80점 이상의 분류기준은 자료를 정확하게 분류하는데 적합하지 않았다. 하나의 대안으로 분류기준중 문제가 되는 F척도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F척도를 만들어서 적용시켜 보았다. 그 결과 기존의 분류기준을 사용했을 때보다 프로파일의 분류정확도가 증가하였다. 그리고 TR과 Ca, 새로운 F척도를 예측변인으로 하여 판별분석한 결과, 프로파일분류의 정확도는 97.4%이고 교차타당화에 사용된 집단의 분류정확도는 97.0%였다.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MMPI)의 타당도 지표는 실시된 검사를 제대로 실시된 것으로 받아들이야 하는지, 아닌지를 결정하기 위해 개발된 4개의 타당도척도상의 점수이며, 검사자는 검사결과를 해석하기 전에 이 지표에 의해 그 검사결과를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이야 할지의 여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

MMPI검사에서 타당하지 않은 반응은 피검사의 독해력 부족이나, 좋게 보이거나 나쁘게 보이려는 시도, 무선응답태도등에서 비롯된다. 이 중 무선응답은 부주의, 부적응, 결정을 내리기 어려움, 독해력의 부족등에서 비롯되며, 검사결과를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만드는 무선반응은 결과를 해석하기전에 선별되어야 한다.

무선반응프로파일을 선별하는 전통적 방법으로는 L, F, K의 타당도 지표가 있으며, 그 중 특히 F척도는 무선응답태도에서 많이 증가된다. 그러나 F척도는 실제로 피검사가 경험하는 비전형적인 사고를 반영하도록 만들어진 척도이므로, 무선응답 태도에서 뿐만 아니라 비전형적인 사고에 의해서도 영향받기 때문에 F척도가 반드시 무선응답태도만을 반영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한 부가적인 지표로서 Buechley와 Ball(1952)은 test-retest지표를, Greene(1978)은 Carelessness지

표를 발달시켰는데, 이것을 실제로 적용시키기 위해 기준을 마련하고자하는 연구가 많이 행해져왔다.

TR척도점수는 566개의 문항가운데서 반복되는 16쌍의 문항중 불일치하는 쌍의 갯수로서, Buechley와 Ball(1952)은 F척도가 70점 이상인 자료에 대해 그 자료가 타당한가를 구별하는데 TR척도가 유용하다고 하였다. TR척도가 단순한 검사-재검사 지표인데 반해 Ca척도는 심리적으로 반대되는 문항을 경험적으로 선정하여 짝지은 것들이다. Greene(1978)은 이와 같이 심리적으로 반대되는 문항들은 MMPI를 제대로 실시할 능력이 없거나, 의지가 없는 피검사자를 구별하는데 더 예민하며, 특히 피검사자가 MMPI에 반복되는 문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TR척도로 무선반응프로파일을 탐지하기 어려운 경우에 더욱 유용하다고 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F, TR, Ca척도는 모두 무선반응 프로파일을 탐지하는 데 사용될 수 있지만, 이 세 척도간의 상관은 그다지 높지 않다. 이러한 사실은 각 지표들이 서로 상관은 있으나 동일한 것을 측정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볼 때, 무선반응프로파일을 탐지하는 데 있어서 단일지표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여러지표를 적절히 조합하여 쓰는 것이 더 유용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적절한 분류점수를 제안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나, 이들의 결과는 일치하고 있지 않다.

Buechley와 Ball(1952)은 TR점수가 3점 이상이면 타당하지 못한 자료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Dahlstrom, Welsh와 Dahlstrom(1972)들은 TR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고려하여 분류점수 4점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Greene(1979)은 그의 연구에서 TR 4점 이상, Ca 4점 이상, $F>80$ 을 제안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Greene은 Ca와 TR을 조합하여 실제 무선반응프로파일에 적용시켜 보았는데, Ca와 TR에 의해 모두 타당하거나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일치되게 자료를

분류한 비율이 82%였으며, 두 지표에 의한 분류가 서로 일치하지 않게 나온 경우는 18.4%였다. Rogers(1983)들은 여러 척도의 조합을 분류기준으로 사용하여 환자집단과 무선반응 프로파일을 구별하였으며, 그 결과 $F>80$ 과 $TR>4$ 을 동시에 적용한 경우 가장 변별력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김중술과 배정규(1986)는 신경정신과 환자 집단과 정상인 집단의 MMPI프로파일에 대해 각 피험자가 전체응답 중 일정비율을 무선응답하였을 경우의 프로파일을 이론적 기대치에 의하여 구한 후, 무선응답비율의 변화에 따라 전체 프로파일과, TR, Ca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알아보고, TR이 6점이상이고, Ca가 5점이상이면 무선반응 프로파일로 분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연구자가 수집한 환자의 MMPI반응에는 무선적으로 응답한 반응이 하나도 없다는 것과, 만일 피검사자가 무선적으로 응답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모든 문항에 대해 무선응답할 확률이 동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가정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연구자가 타당한 자료라고 간주하였던 환자의 반응프로파일에 무선반응이 하나도 없다고 가정할 근거가 없다. 병원장면에서 피검사자들은 검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가지 정신병리 증상을 나타낼 수도 있고, 피검사자에 따라 검사상황과 동기수준이 다를 수 있다. 특히 환자의 경우 TR, Ca점수가 대체로 정상인보다 높게 나오는데, 이와 같은 증가가 무선응답태도에 의한 것인지, 혹은 다른 이유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고서는 위와 같은 가정을 할 수 없다. 또한 두번째 가정을 살펴보면, 연구자도 논의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여러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피험자는 특정문항에 대해 무선응답을 할 가능성이 더 많을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가정은 연구결과를 해석하는데, 그리고 실제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오류를 범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다. 또

한 많은 연구자들이 F와 TR, Ca척도를 조합하여 사용하거나(Greene, 1979; Rogers, Dolmet-sch, & Cavanaugh, 1983), F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TR과 Ca를 참고로 프로파일의 타당도를 고려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Greene, 1978), 이 연구에서는 F와 TR, Ca척도간의 상관과 TR, Ca의 분류점수만을 제안하고 있을 뿐 F척도점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F척도는 '예', 혹은 '아니오'라고 대답한 비율이 10%이하인 문항을 선정하여 만든 척도이므로, 문항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 실제로 한국의 F척도 원점수 평균은 미국의 평균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무선반응 태도를 탐지하는데 있어서도 외국 연구에서 제안하는 F척도 분류점수를 그대로 적용해서는 곤란하며 우리 현실에 맞는 기준을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신과 환자와 대학 학생 생활 연구소에서 상담한 대학생들의 프로파일을 자료로 하였다. 이 자료 중 비교적 동기가 높은 대학생 내담자들의 자료를 무선반응이 적은 것으로 간주하고, 이 자료와 무선반응 자료를 기초로 하여, 실제 환자 집단과 대학생들의 반응양상을 살펴보고, 무선반응의 지표인 F, TR, Ca척도값의 분포와, 국내 연구에서 제안된 분류점수가 무선반응프로파일을 선별하는데 타당한가를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무선반응프로파일을 선별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제안하고자 한다.

방 법

본 연구에는 모두 491개의 MMPI(566문항)자료가 사용되었는데, 149개는 대학 학생생활연구소에 상담이나 심리검사를 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찾아온 학생들의 MMPI자료이고 192개는 2개병원 정신과환자(입원 및 외래)의 자료이며 나머지 150개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예/아니오' 대답을 무선

적으로 선택하게 하여 넣어서 만든 자료이다. 실제 분석시에는 무응답이 30개이상인 프로파일을 제외하고 182개의 환자프로파일과 146개의 대학생 프로파일을 사용하였다.

결 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대학생집단과 환자집단, 무선반응의 MMPI 각 척도와 TR, Ca, NF척도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는 표1과 같다.

표1. MMPI 척도에 있어서 집단별 평균과 표준편차

척도	환자	대학생	무선반응
Ca	3.2(1.7)	3.3(1.6)	6.1(1.7)
TR	2.8(2.4)	1.6(1.5)	7.9(1.8)
NF	11.2(7.0)	8.6(5.5)	31.8(3.9)
L	5.0(2.3)	3.4(2.3)	6.4(1.9)
F	15.6(7.3)	14.2(6.1)	30.4(4.1)
K	12.8(4.7)	11.7(4.0)	16.1(1.8)
Hs	13.9(6.4)	12.3(5.8)	18.1(2.1)
D	31.4(7.5)	27.7(6.3)	30.1(4.0)
Hy	27.1(6.8)	25.6(5.9)	33.9(4.0)
Pd	23.9(5.2)	23.8(4.9)	25.6(3.3)
Mf(남)	27.0(5.3)	28.1(4.8)	28.9(2.8)
Mf(여)	32.1(4.4)	33.0(4.0)	30.1(3.3)
Pa	14.0(4.7)	13.3(4.1)	19.8(2.9)
Pt	24.1(9.3)	22.6(8.6)	22.8(2.9)
Sc	29.2(11.8)	29.3(10.6)	39.7(4.2)
Ma	19.7(5.0)	21.6(5.2)	21.1(2.8)
Si	37.8(8.3)	36.2(9.0)	35.8(3.3)

평균(표준편차)

각 척도별로 집단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e의 사후검증방법을 적용해 보았다. 환자집단과 대학생집단은 TR, L, D, Ma척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환자집단과 무선반응 프로파일의 비교에서는 D, Pt, Si척도를 제외한 모든 척도에서 또 대학생 집단과 무선반응프로파일의 비교에서는 Pt, Ma, Si척도를 제외한 모든 척도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MMPI자료에 있어서 타당하지 않은 프로파일을 선별하는 기준으로 Greene은 TR 4이상, Ca 4이상, F는 T점수로 80점 이상을 제안하고 있으며, 김중술과 배정규의 연구에서는 TR 6이상, Ca 5 이상을 제안하고 있는데, 본 연구 자료에 이러한 기준을 적용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2. 분류기준에 따라 무선반응으로 판별된 자료의 비율(%)

	환자	대학생	무선반응
TR>=4, CA>=4, & F>80	0.6	0.0	12.0
TR>=4 & CA>=4	13.1	4.8	90.6
TR>=6 & CA>=5	3.8	0.0	80.0
TR>=4	35.7	8.8	98.0

위의 결과를 살펴보면, Greene의 분류기준을 적용했을 경우, 무선반응프로파일을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올바르게 분류한 것이 전체 150개 자료 중 18개에 불과하며, 이와 같은 결과는 무선반응의 F척도 평균이 약 30개인데, 이는 우리나라의 규준에 따라 T점수로 환산하면 약 70점내외로서 Greene이 제안한 기준에 의해 타당한 것으로 분류되는 점수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표3. F척도와 NF척도의 문항에 대해 채점되는 방향으로 응답한 비율

응답비율	F척도의 문항	NF 척도의 문항
80-71%	20(1)	
70-61%		
60-51%	252(1)	
50-41%	14, 115, 156, 258(4)	
40-31%	40, 53, 65, 113, 146, 169, 185, 257, 272, 276(10)	
30-21%	54, 75, 139, 164, 168, 199, 210, 215, 269, 286, 293(11)	F 척도 11개 사용(11)
20-11%	17, 257, 34, 35, 42, 48, 49, 50, 85, 184, 196, 200, 205, 209, 211, 218, 220, 227, 245, 247(20)	F 척도 20개 + 88 92, 110, 167, 271(25)
10-1%	31, 56, 66, 83, 112, 121, 123, 151, 177, 197, 202, 206, 246, 256, 275, 288, 291(17)	F 척도 17개 + 72, 90, 102, 105, 124, 130, 150, 161, 162, 195, 273(28)

그러나 Greene의 분류기준에서 F척도를 제외시키고 적용시켰을 경우에는, 무선반응 프로파일 150개 중 136개를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함으로서 비교적 올바르게 분류하고 있으나, 환자의 자료는 182개 중 32개를, 대학생의 자료는 146개 중 7개를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함으로서, 이것 역시 분류기준으로는 적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중술과 배정규가 제안한 분류기준에 의하면 대학생 프로파일은 모두 타당한 것으로 적절하게 분류되었으며, 무선반응 프로파일은 150개 중 120개가 제대로 분류되었다. 그렇지만 이 분류점수 역시 프로파일을 정확하게 분류하는데는 비교적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F척도의 문항중 정상적인 응답비율이 31% 이상인 문항을 제외시키고, '예' 혹은 '아니오'의 응답비율이 15% 이하인 문항을 추가시킨 새로운 척도를 프로파일 분류에 적용시켜 보았다. F척도와 새로운 척도(NF)의 문항번호 및 응답비율은 표 3 같다. (NF척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에서 제시하고 있다.)

F척도는 본래 질문에 대해 '예' 혹은 '아니오'라고 응답한 비율이 10% 이하인 문항을 뽑아서 만든

척도인데, 본 연구자료의 응답비율에 의하면 이와 같은 기준을 만족시키는 문항은 전체 64개문항중 17개에 불과했다.

새로 만든 척도를 F척도대신 적용한 결과는 표 4에서 제시하고 있다.

표4. NF 척도를 적용했을 경우 무선반응으로 판별되는 비율(%)

	환자	대학생	무선반응
TR>=4, & CA>=4, & NF>25	1.6	0.0	86.7
TR>=4, & NF>=25	1.6	0.0	93.3

대학생집단의 NF척도 평균은 8.6 이고, 표준편차는 5.5이므로 환산점수 80점에 해당하는 원점수 25개 적용한 결과 무선반응 프로파일은 150개중 130개가, 환자의 자료에서는 182개중 3개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자료중에서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또한 분류기준중 Ca척도를 제외시켰을 경우, 무선반응프로파일은 140개를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함으로서 오히려 변별력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Rogers, Dolmet-sch, Cavanaugh(1983)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결과에 의하면 TR과 Ca, NF척도의 각 분류점수를 적용하여 프로파일을 구별하였을 경우, 프로파일이 어느정도 정확하게 구별되기는 했으나, 무선반응 프로파일 중 6.4%는 여전히 타당한 것으로 잘못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또다른 해결책으로서 TR, Ca, NF 세 척도

를 예측변인으로 하여 무선반응 프로파일의 판별을 최대화 하는 판별방정식을 세워서 자료들을 구별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무선반응 프로파일을 한 집단으로 하고, 환자와 대학생 프로파일을 다른 한 집단으로 하여, 이 두 집단에 대해 판별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을 하는데 있어서 전체 피험자중 남자집단을 준거집단으로 하였고, 여자집단을 대상으로 교차타당화를 실시하였다. 판별분석 결과는 표5와 같다.

분석에 의해 얻어진 판별함수는 전체변량의 97.4%를 설명하고 있으며, 예측변인중 NF와 TR이 판별함수와 높은 상관을 보이는데, 이와 같은 결과로 미루어 산출된 판별함수는 NF와 TR을 그 특성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있다.

표5. NF, Ca, TR변인을 이용한 판별분석결과

판별방정식 $D = -3.30 + 0.09 Ca + 0.25 TR + 0.12 NF$			
판별함수와 예측변인사이의 상 관		Can. R 0.89	
NF	0.87	고유가	3.82
TR	0.70	유의도	0.00
CA	0.41		
집단별 판별함수의 중심값		(집단 분류점 : 2.30)	
환자 및 대학생		무선반응프로파일	
중심값	-1.1	3.4	

표 6은 판별함수를 이용한 분류의 안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교차타당화를 실시한 결과로, 교차타당화를 위해 사용한 표본중 97.0%를 정확하게 분류해냄으로서, 높은 안정성을 보이고 있다.

표6. 판별함수에 의한 집단분류 정확도와 교차타당화 정확도

	예언 집단		교차 타당화	
	타당반응	무선반응	타당반응	무선반응
환자 및 대학생	96.5%	3.5%	95.5%	4.5%
무선반응프로파일	0.0%	100.0%	0.0%	100.0%
분류정확도	97.4%		97.0%	

논 의

연구자료의 분석결과, 대학생집단 및 환자집단의 MMPI 프로파일과 무선반응 프로파일을 비교했을 때, 거의 모든 척도의 평균값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이를 구별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제안된 분류기준은 무선반응 프로파일을 타당하게 구별해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reene(1979)이 제안한 분류기준의 경우, F척도의 점수가 T점수로 80점이상이면 타당하지 않은 자료로 분류하는데, 한국에서 80점에 해당하는 원점수는 무선반응 프로파일의 평균보다 큰 값이 된다. 따라서 무선반응 프로파일의 F척도 점수는 대부분이 80점 이하이며, 이 점수는 타당한 프로파일로 분류되는 범위이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분류기준에 F척도를 사용하는 것은 신중한 고려를 필요로 한다. 그렇지만 F척도는 무선반응 태도에 의해 가장 현저하게 증가하는 척도이고, Greene(1978)이나 Jones & Neuringer(1976)들은 프로파일을 구별하는데 있어서 TR이나 Ca보다 우선 F척도를 고려할 것을 추천하고 있으므로 이를 제외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다.

F척도는 '예', 혹은 '아니오'라고 응답한 비율이 10%이하인 문항을 선택하여 만든 것인데,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와 같이 정상인들이 F척도의 많은 문항에 대해 채점되는 방향으로 응답했다는 것은, 프로파일의 구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F척도 자체의 해석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주제와는 다른 영역이지만 문화의 차이를 고려한 검사의 해석이라는 문제도 임상심리학자가 소홀히 할 수없는 문제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은 무선반응 프로파일과 타당한 프로파일을 구별할 수 있을 만큼 두 프로파일이 F척도평균에서 충분히 차이가 나도록 하는 것이다. NF척도는 이러한 가정에 따라 F척도 문항중 채점방향으로의 응답비율이 높은 문항을 제외시키고, 다른 적절한 문항

으로 대체시켜 만든 것이다. 그러나 이 척도를 적용했을 경우 무선반응 프로파일은 비교적 잘 분류되고 있으나, 몇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우선 문항의 삭제 및 선택이 대학생 자료를 근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른집단에 적용시켰을 때 해석이 어렵다. 그리고 새로운 척도가 과연 F척도만큼 피검사자의 정신병리에 의한 혼란이나 증상의 과장을 잘 드러낼 수 있는가도 의문시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새로운 척도는 F척도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고 가능한 대안중 하나를 제시하고 있을 뿐이며, 이에 대한 해결과 실제 적용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F척도를 고려하지 않고 무선반응을 분류하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는 높은 TR척도의 점수가 실제로 무선반응 태도를 반영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Bond(1986)는 MMPI문항중 반복되는 문항에서 불일치를 보이는 이유는 피검사자의 부적응, 부주의, 우유부단한 태도등을 들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중에서 피검사자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TR척도 문항에서의 불일치를 단순히 무선반응태도, 또는 부주의로 해석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무선반응 프로파일을 구별하기 위하여 단일지표를 사용하는 것보다도 각 지표의 적절한 분류점수 조합을 사용하는 것이 더욱 정확하다는 것은 선행연구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 의해서도 확인된 사실이다. 여러 척도의 정보를 동시에 고려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판별분석 결과의 사용을 들 수 있다. 몇 개의 척도를 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하나의 척도가 우연히 낮은 값이 나와서 타당하지 않은 자료가 타당한 것으로 잘못 분류될 수 있는 반면, 판별함수를 사용하면 이러한 오류는 감소될 수 있다. Carlin(1990)은 프로파일을 분류하기 위하여 MMPI의 타당도 척도와 임상척도를 예측변인으로 하여 판별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F와 K,

D, Hy, Pd, Mf척도를 예측변인으로 하여 자료를 분류하였을 경우, 자료의 97%가 정확하게 분류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는 분류기준에 사용된 TR, Ca, NF를 예측변인으로 하여 판별분석을 하였다. 준거집단의 자료는 97.4%가 정확히 분류되었으며, 교차타당화를 실시한 집단의 자료는 97.0%가 정확히 분류되었다. 게다가 판별분석에 의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된 자료는 환자의 자료로서, 프로파일의 형태를 살펴보면 실제로 무선반응에 의한 자료일 가능성이 큰 것이며, 따라서 분류의 정확도는 더욱 높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정보는 프로파일의 분류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다른 부가적인 정보(프로파일의 형태, 면접시 피검사자의 태도등)와 같이 사용된다면 분류의 정확성은 더욱 증가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무선반응 프로파일은 100% 무선반응으로 만들어진 자료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제안된 기준들이 부분적으로 무선반응이 포함된 자료에 적용되었을 경우, 어느 정도 프로파일을 구별할 수 있을것인가는 미지수이며, 이를 검증하는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선 응답이 적은 자료로 학생생활연구소에서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은 학생들의 자료를 사용하였는데, 이들은 동기가 높다는 점에서는 적절한 자료로 볼 수 있으나, 대학생이라는 특정집단의 자료만을 사용하였으므로 일반 정상인들의 검사결과와는 다를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은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서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환자자료의 경우 정상인에 비해 무선반응을 탐지하는 척도의 점수가 대부분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점수의 증가를 실제로 무선반응태도에 의한 것으로 해석할 것인가, 혹은 정신병리에 의해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으로 해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임상심리학자가 해결해야 할 또 다른 문제이다.

참고문헌

- 김중술·배정규 (1986). MMPI에서의 무선 응답의 영향. 86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 초록, 189-198.
- Beuchley, R., & Ball, H.(1952). A new test of "Validity" for the group MMPI.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16, 209-301.
- Bond, J. A.(1986). Inconsistent responding to repeated MMPI items: Is the major cause really carelessnes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0, 50-64.
- Carlin, A. S.(1990). The discrimination of patient generated and randomly generated MMPI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4, 24-29.
- Colligan, R. C.(1976). Atypical response sets and the automated MMPI.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2, 76-78.
- Dahlstrom, W. G., Welsh, G. S., & Dahlstrom, L. E.(1972). *An MMPI Handbook*.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Greene, R. L.(1978). An empirically derived MMPI carelessness scal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4, 407-410.
- Greene, R. L.(1979). Response consistency on the MMPI: The TR Index.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9-71.
- Jones, F. W., & Neuringer, C. (1976). An evaluation of an MMPI response consistency measur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0, 419-421.
- Rogers, R., & Dolmetsch, R.(1983). Identification of random responders on MMPI protocol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7, 364-368.

The Effectiveness of Random Response Set Identification Scale of MMPI Profiles

Sun-Mi Cho, Byoung-Kwan Park and Chang-Yil Ahn

Dong-Kyun Shin

Korea University

Department of Psychiatry
Korea University

The most of the previous researches suggested that a combination of some MMPI scales are useful to identify random response set of the MMPI profiles. Greene (1978) recommended the $TR > 4$, $Ca > 4$, $F > 80$ for a clinical decision. In order to identify the validity of this criteria, 182 MMPI profiles obtained from psychiatric patients, 142 profiles of the students who visited to the university counseling center and 150 computer generated random response profiles were analyzed. The results show that the Greene's criteria does not classify random response set profiles successfully because most of the items of F scale do not satisfy the original selection criterion. As an alternative to this identification criteria, a new scale which would replace the F scale was constructed and applied. The consequences are that a new scale is more successful in identifying the random response set profiles than the originally suggested criteria. A discriminant analysis using the TR, Ca and the new F scale as prediction variables showed that 97.4 % is successful in classifying the profiles while 97.0 % is successful in classifying the profiles used for cross validation.